

제목: 퍼즐 피플

글의 주제

일상의 유지와 도덕적 양심 사이에서의 고민과 갈등

등장인물

유진혁

나름 성실하게 살아온 20대 성인, 다양하고 이상한 성격들이 내면에 있음. 최소한의 양심은 지니고 있으나 이상한 성격들의 집합체답게 정상은 아님.

침입자

주인공에게 맞아 죽은 사람, 목적을 가지고 주인공 집에 몰래 침입함. 말투는 센 편이지만 성격은 신중해서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함.

재수생

5수째 재수를 하는 사람, SKY 중 S대를 지망하고 있으나 성적이 낮아 매번 떨어짐. 굉장히 신경질적인 성격을 지님.

이수민

주인공이 좋아하는 학교 동아리 후배, 예쁜 얼굴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여자.

줄거리

약간의 취기가 오른 채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온 주인공 진혁.
집에 침입한 침입자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수로 침입자를 죽이게 된다.
쓰러진 침입자를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진혁.
인터넷에서는 모두 자신을 싸이코패스, 정신병동 입원, 징역 3년과 같은 말들로 취급한다.

그런 상황 속 유일한 내 편인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진혁의 성격들이 나오게 된다.
서로의 의견 불일치와 재수생의 히스테리 등으로 멘탈이 약해져 있는 은형은 약간의 계기로 시체를 유기하기로 결정했다.

평범한 삶을 살아온 은형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사건을 가볍게 풀어낸 이야기